

4·3이 어우꼬와?

기억투쟁 70년 제주4·3

1948



2018



역사에 정의를 
나·3에 정명을

표제설명 “머우파?”는 표준어 “무엇입니까?”의 제주어 표현

CONTENTS

- 04 4·3, 들어보긴 했는데
- 05 해방, 무엇이 해방되었나
- 07 한반도의 주인은 누구일까
- 08 가장 오래 존속했던 제주도 인민위원회
- 10 해방 후 제주도민의 삶
- 11 1947년 3·1절 기념 대회
- 13 4·3의 도화선, 3·1절 발포사건
- 14 전도민이 참가한 항의 총파업
- 16 서북청년회와 제주도
- 18 1948년 4월 3일
- 20 4·28 평화 협상과 오라리 방화사건
- 22 분단을 가져오는 5·10선거를 거부하다
- 23 박진경을 암살한 문상길 중위의 최후진술
- 26 1948년 8월과 9월에 들어선 두 개의 정부
- 27 1948년 가을부터 시작된 광기의 시대
- 33 4·3의 이름을 정하지 못하는 까닭
- 34 국가 지정 추념일인 4월 3일
- 36 4·3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 38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4
3
이
머
우
과

—
?



4.3 들어보긴 했는데

우리는 제주4·3이 제주 사람들이 억울하게 많이 죽은 사건이라는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또렷하게 그려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왜 일어났는지, 언제적 이야기인지 그리고 그걸 내가 왜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 기억이 말살당한 곳에는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가 없는 데는 인간의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람이 아닌 주검과 같은 존재입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기억을 말살당한 4·3은 한국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입 밖에 내놓지 못하는 일, 알고서도 몰라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기억의 자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공포에 질린 섬사람들 자신이 스스로 기억을 망각으로 들이 쳐서 죽이는 ‘기억의 자살’인 것입니다. 김석범(소설가)

1948



태극기 정용성 작, 일장기에 먹으로 태극기를 그리고 있는 모습을 그린 작품(4·3평화기념관 내 전시작품)

모르는 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사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일제가 물러간 뒤에도 친일파가 다시 권력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저지른 과오들을 그들은 숨겼던 거지요. 그리고 그들 권력이 오늘날 적폐세력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숨겨왔을 밖에도.

이제는 이야기해야겠지요.

왜 그런 억울한 죽음이 있었는지,

아니 그보다도 그 사건이 내 삶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말입니다. 잘못된

과거의 올바른 청산은 그 뿌리부터 알아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해방정국에서부터 살펴야 찾을 수 있습니다.

해방, 무엇이 해방되었나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35년간의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를 끝내고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징용에서, 징병에서, 공출에서, 창씨개명에서 풀려난 감격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복은 일제가



해방의 감격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독립운동가들이 해방과 함께 풀려나면서 만세를 부르고 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나 힘이 센 쪽과 친분을 유지하여 자신의 명예와 부를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에게는 참 당혹스러운 날이기도 했을 겁니다. 대구 10월항쟁이나 제주4·3은 해방 후 3년 사이에 일어난 비극적 사건입니다. 6·25 한국전쟁은 해방 후 5년 무렵에 일어났고요.

“ 왜 그랬을까요? ”

‘흙 다시 만져보자/바닷물도 춤을 춘다’로 시작되는 광복절 노래처럼 축복이 되어야 할 해방이 왜 이처럼 힘든 고통을 우리 민족에게 안겼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라든가,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라든가, 이와 같은 복잡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 스스로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지 못했



교체되는 점령군의 국기 서울 조선총독부에서 패망한 일제의 일장기와 진주한 미군의 성조기가 교체되고 있다.

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일본을 무찔러 쫓아낸 것은 아니지요. 다들 알겠지만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의 하나인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 등의 연합국에게 패배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한반도를 지배할 힘을 잃었지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광복을 맞이한 것이고요.

1948 —

“ 그렇다면 연합국은 왜 일본과 싸웠을까요? ”

우리 민족의 식민지 생활이 너무나 불쌍해 보여서? 그건 아닐 겁니다. 국제 관계에는 냉혹한 힘의 논리만이 작용합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 민족에 대한 동정 때문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을 뿐입니다.

여기서 누가 이겼지요?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입니다. 그랬으니 당연히 한반도는 연합국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한반도 남쪽은 미군이 차지고, 북쪽은 소련군이 차지했습니다.

미군은 “본관 휘하의 전승군은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지역을 점령(occupy) 함”이라는 맥아더 포고문 1호를 발표하며 우리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만 3년간을 통치했지요. 그렇게 미국 군사정부, 줄여서 ‘미군정’은 이 땅을 3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한반도의 주인은 누구일까

그런데 분명 한반도는 우리 땅이잖아요. 그러니 미국과 소련이 우리 땅을 통치하도록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었지요. 여러 애국자들이 우리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운형이라는 사람입니다. 일제의 패망이 눈앞에 다가오자 여운형 등 선각자들은 ‘건국동맹’을 조직하였습니다. 건국동맹은 이후 ‘건국준비위원회’로 발전했고 조선총독부로부터 잠시나마 치안 유지 권한을 넘겨받기도 했습니다.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곧이어 명칭을 인민위원회로 바꿨습니다.



몽양 여운형

‘인민’이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지요?

하지만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지기 전까지는 대부분 ‘인민’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나중에 북한이 이 용어를 좋아하니 남한에서는 차츰 쓰지 않게 된 것일 뿐, 당시에는 이 용어가 국민, 시민보다 보편적인 용어였습니다. 암튼 이때 조직된 인민위원회는 일제 패망 이후 새 조국 건설을 위해 우리 민족이 만들었던 전국 단위의 최대 조직이었습니다. 당연히 제주도에도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지요.

그러나 38도선 남쪽의 한반도에 상륙한 미군은 인민위원회에서 만든 우리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미군정’만을 38선 이남의 합법 정부라 선

포했습니다. 인민위원회가 대다수 민중의 지지를 받으며 각 지방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정은 자신의 통치를 위해 인민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켜야 했습니다. 갈등은 필연적으로 닦쳐왔습니다. 이때 미군정은 통치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명분 아래, 과거 일제 때 일제의 통치기관에서 일했던 관료들을 대거 등용하여 통치기구의 손발로 활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 일제 패망 후 한반도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

당연히 우리 민족이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미군 등 연합군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린 게 아니지요. 전쟁 후 전승국은 패전국을 점령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국제적 힘의 논리에서는요. 일제 때 한반도는 일본의 영토였지요. 그러니 승전국 미국은 패전국 일본 영토의 일부를 점령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도 민중들은 ‘우리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1948 —

가장 오래 존속했던 제주도 인민위원회

제주도의 인민위원회는 특히 결속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정의 탄압으로 다른 지역의 인민위원회가 소멸되어가거나 이름을 바꿀 때에도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건재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육사업에 많은 노력을 쏟았고, 야학과 학교를 설립하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광복 직후 한동안 제주 사회의 주도권은 인민위원회가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미군정의 지배가 관철되고 있긴 했지만, 일상의 활동과 주민 정서에서는 제주도인민위원회의 영

향력이 커서 미군정 당국에서도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관공서와 똑같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군정과 인민위원회의 대립은 커져만 갑니다. 해방이 되었다는 기쁨은 잠시, 여전히 일제고문경찰이 해방조국에서도 경찰이 되어있고 공출을 독려했던 총독부 직원은 그대로 면직원이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인민위원회 강요배 작

2018

☞ 그때는 박경훈 도지사 명의로 치안 공문이 올 때면 인민위원회 한림면청년동맹위원장의 이름을 먼저 쓰고 그 밑에 한림시시장의 이름을 썼습니다. 우리가 치안유지를 하는 데 더 힘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미군정 스타우트 소령은 각 지역 인민위원회 청년동맹위원장들을 불러 ‘일본군 물자는 당신들 것이 될테니까, 일본군이 불지르지 못하게 해 달라. 그리고 치안과 질서가 유지되도록 앞장서 달라’라는 부탁을 하더군요. 고경흠 (제주도 한림읍 한림리, 당시 31세)

군정의 정보요원으로 근무했던 E. 그랜트 미드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모든 면에서
제주도에서의 유일한 당이었고 유일한 정부였다. ”

해방 후 제주도민의 삶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치보다는 생활 그 자체에 민감합니다. 먹고사는 데 지장 없고, 삶이 즐거우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지요. 그런데 이 무렵 제주 사람들은 먹고사는 것도 많이 힘들었어요. 일단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부족해졌어요. 20만 남짓이던 제주도



해방 후 제주 시내

에서 무려 6만 인구가 갑자기 불어났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돈 벌러 일본으로 건너갔던 사람들이 광복이 되자 고향으로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이로 인해서 심각한 일자리 부족과 사회불안이 뒤따랐습니다.

1948

☞ 해방이 되니까 일제 때 노동자로 갔던 사람, 징병, 징용갔던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품고 귀향했는데, 제주도에선 먹고살 길이 없었어. 4·3을 두고 남로당 어찌구 하는데 그건 지엽적인 문제야. 문제는 해방되었지만 친일파들은 그대로 있고, 대학을 다녔어도 취직도 안되고, 경찰들이 모리배 노릇을 하고 탄압하니까 거기에 반발한 거야. 강순현 (당시 27세, 오현중교사, 미군정 관재처 불하과장 역임)

게다가 일본으로 돈 벌러 갔던 사람들이 귀국할 때, 일본에서 번 돈을 거의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미군정이 이를 막았어요. 일제 강점기에는 생활 필수품도 일본에서 들여왔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막혔습니다. 이러다 보니 제주 사람들의 경제생활은 말이 아니었던 거지요. 게다가 1946년 여름, 제주도에서는 콜레라가 발생하여 매일 평균 50명의 환자가 생기고 가뭄에 따른 흉년이 겹쳐 식량부족이 큰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

기 때 관리들이 그대로 관직에 앉아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살림에 관료들의 부정부패는 제주 사람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랬으니 도민들은 화가 난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나라를 되찾았다면 아마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청년들은 이런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청년들이 앞장서자 도민들도 이에 호응하며 힘을 모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1947년 3·1절 기념 대회

충돌이 본격화된 것은 1947년 3월 1일, 소위 ‘3·1절 발표사건’이었지요. 흔히 이 사건은 제주 4·3의 도화선이라고 말합니다.

2018

조선일보

1947. 3. 2.

1947년 3월 1일, 민주주의민족전선은 3·1기념대회를 서울 남산공원에서 개최했다. 처음에 민전은 서울운동장을 대회장으로 할 것을 군정청에 신청했으나 거부되고, 서울운동장에서는 우익진영의 기념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좌익의 민전 주최 행사는 남산공원에서 ‘3·1절 기념 시민대회’라 이름 붙였고, 우익이 주최하는 대회는 서울운동장에서 ‘기미선언전국대회’라 했다. 남산공원의 좌익진영대회에서는 수만 명의 노동자 농민, 시민, 학생이 참가했고, 11시 30분에 개회가 선언되었다.

1947년 3월 1일, ‘제28주년 3·1절 기념 제주도대회’가 제주시 북국민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치러진 3·1절 기념행사였지요.

제주에서는 서울처럼 두 개로 나뉘지지 않고 한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진



해방 강요배 작

정한 자주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열망들이 모인 겁니다. 해방이 되었는데도 사회가 좋아지진 않고 계속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자, 과거 항일운동 전통을 계승하며 현재에 닥친 고난을 이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1947년 3·1절 기념 대회였습니다. 일제에 항거하던 그 정신을 살려, 해방에도 불구하고 꼬여만 가는 세상을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지금의 제주북초등학교(그때는 ‘제주북국민학교’라고 불렀답니다)에 무려 3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3·1정신으로 통일 독립 전취’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해방이 되어도 좋은 세상이 오지 못한 이유는 여전히 외세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지

요. 또한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외세 때문에 잘못하면 한반도가 두 개로 쪼개질 것 같다는 걱정도 들었던 겁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전쟁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불안한 것이기에 ‘통일 독립’을 외쳤던 겁니다. 다시 말해 외세 간섭 없



당시 미군정 기마경찰 (이해를 돕기 위한 다른 지역의 사진자료)

이, 그리고 분열됨 없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로 독립 건국하면 사회갈등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관덕정 뒤편에 위치한 북국민학교에서는 오후 2시에 식이 끝나자 곧바로 가두시위가 벌어졌지요. 다른 지역은 끝나서 음악회(대정면)를 하기도 하고 씨름대회(안덕면)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북국민학교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 시위대가 관덕정 서쪽으로 빠져나갈 즈음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어 다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말발굽에 다친 아이를 그냥 두고 가는 기마대를 향해 흥분한 군중들이 돌을 던지며 항의했습니다.

4.3의 도화선, 3·1절 발포사건

오후 2시 45분께, 제주읍 관덕정 앞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시위대가 빠져나갈 즈음, 기마경찰이 급히 경찰서 쪽으로 달려간 다음에 터진 총소리, 관덕정 광장 앞에 있던 제주경찰서 망루에서 미군정 경찰이 구경꾼들을 향해 총을 쏜 것입니다. 3·1대회를 앞두고 미군정에서는 제주 지역에 100명의 응원경찰을 내려보냈습니다. 이날 발포를 한 것도 육지에서 급파된 응원경찰이었지요. 민간인 6명이 죽고, 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



피살 강오배 作, 3·1발포사건을 형상화한 작품

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발포사건이 3만 명의 희생자를 낸 4·3의 도화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그때의 발포는 분명히 경찰의 과잉대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전혀 무장을 하지 않았으며 게다가 사망자 대부분

이 등에 총을 맞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발포임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만일 실수였다면 사과를 하고 사태를 수습했어야지요. 그런데도 경찰은 끝까지 정당방위라고 우겼습니다. 당시 사망자 6명 중 한 명은 아기를 업은 여성이었고 나머지는 학생, 구경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등 뒤로 총을 맞았습니다. 항의하는 군중이 아니라 도망가는 군중을 향해 총을 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1절 집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심은 들끓었습니다.

1948

“ 발포를 명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미군정의 명령 없이 개인의 판단으로 총을 쏠 수 있을까요? ”

전도민이 참가한 항의 총파업

제주도민의 거센 항의가 시작됩니다. 1947년 3월 10일에 시작하여 22일에는 제주도 전체의 총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파업이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든 일을 멈추어버리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가기를 거부했고, 제주도청 공무원들은 제주도 행정을 위한 일을 멈추어버린 것입니다.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도 장사를 그만 두었고 작은 가게도 대부분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장사를 하지 않으면 먹고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3·1절 발포에 항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미군정에서 제주도민들의 아픔에 대해 경청하고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군정이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심으려 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미군정은 오히려 반대로 나갔습니다. 미군정 경찰은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규정하고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잡아들였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제주도를 대하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당시 기록을 보면 ‘제주도민 90%가 좌익색채를 띠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북한과 연결되었다거나 주민들이 그 정도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모두 잘못된 주장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전도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모금운동이 펼쳐졌고, 지방 신문들도 조의금 모금운동을 전개하며 과업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등 도민 전체가 미군정의 실정에 분노하였습니다.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박경훈은 도지사로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항의성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박경훈 도지사는 「도민에게 고함」이라는

— 2018



총파업의 관덕정 광장 강요배 작



박경훈 초대 제주도지사

글을 발표합니다. 그 글 안에는 “해방된 오늘 아직도 완전자주독립을 실현하지 못한”이라든가 “금반 사건에 무참히 희생당한 인민에 대하여서는 30만 도민 전부가 한없이 동정과 조의를 표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는 앞날 우리의 통일민주독립을 위하여” 등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 우리는 당시 우리 민족의 상황과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민이 처한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도 더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미군정 경찰은 제주도민의 의견을 듣고 고통을 줄여주는 방법을 택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억압하여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3·1대회 참가자들은 검속 한 달 만에 500명이 체포되었고 수형자는 245명에 이릅니다. ”

1948

이들 중 교사가 81명, 공무원 24명으로 교사와 공무원 중심으로 총파업이 전개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제주도에서 이들은 강한 민족의식과 근대의식, 자치정신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기대는 좌절되어 갔습니다. 1948년 4·3이 일어나기 전까지 1년 사이에 무려 2,500명이 잡혀갔을 정도였습니다. 2,500명이라면 제주도 각 마을마다 뚝뚝한 젊은이들이 거의 잡혀갔다는 말이 됩니다.

서북청년회와 제주도

특히 1947년 3·1사건 이후 미군정의 지시를 받아 북을 고향으로 둔 ‘서북청년회’와 타 지역 사람으로 구성된 응원경찰대가 대거 들어오면서 제주

도 민심은 더 흥흥해져갔습니다. 특히 서북청년회에게는 경찰직함을 주었으나 아무런 급료도 없이 제주도로 보냈으니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제주도민을 약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북한에서 토지



서북청년회 서북청년회는 4·3 전 기간 동안 제주도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다.

개혁과 친일청산 등의 정치적 변화에 내몰려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이라 좌익에 대한 적개심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는 빨갱이 섬’이라고 교육받아 제주도민을 죽이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2018

☞ 우리는 어떤 지방에서 좌익이 날뛰니 와달라고 하면 서북청년회를 파견했어요. 우린들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있겠어요? 그 한 예가 제주도인데, 조병옥 박사가 경무부장으로 있으면서 4·3이 나자마자 저를 불러 제주도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반공정신이 투철한 사람들로 경찰 전투대를 편성한다고 5백 명을 보내달라기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문봉제(당시 서북청년회 단장)

이들의 횡포와 만행에 저항하여 역사적으로 민란의 전통이 있어 온 제주도민 대다수는 4·3을 심정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지지하게 됩니다.

4·3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3·1사건 이후로 형성된 제주공동체의 정서적 반감이 저변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억압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비극적 사건은 잉태되고 있었던 겁니다.

박경훈 제주도지사가 3·10 총파업의 책임을 지고 사임하고, 후임으로 유해진 지사가 서북청년회원(이하, 서청) 7명을 데리고 부임하였습니다. 이후

4·3이 발발하기까지 들어온 서청단원의 수는 76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급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제주도민을 약탈해서 먹고살라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후 계속 파견되어 1,700명이 추가 투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의 옷을 입고 나중에는 경비대(군인)의 옷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 우리 학교 김용철 학생이 조천지사로 끌려가 고문치사를 당한 후, 서북청년회와 경찰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악질 경관 처단하자’라고 쓴 삐라를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막상 4월 3일에 무장봉기가 벌어져 소위 반동이라고 지목받은 사람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는 어린 마음에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서청과 경찰로 인해 도무지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 48년 8월경 산에 올랐습니다. 조천중학원 2학년 때지요. 그땐 사태가 그렇게 오래갈 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여름옷 달랑 입고 올랐겠습니까? 산에 올라 무장대 대장이 된 이덕구 선생님을 우연히 만나 반가운 마음에 ‘선생님! 불렀더니 걱정스런 눈빛으로 ‘공부나 하지 왜 올라왔냐’라고 하시더군요.

김민주(당시 17세)

1948

1948년 4월 3일

이제 본격적으로 1948년 4월 3일의 일을 알아봅시다. 이날은 남쪽만의 단독 선거인 5·10선거를 한 달 가량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제주도민들에 대한 외부세력, 특히 서북청년회의 폭력은 법 위에서 군림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남쪽만의 단독 선거는 사태를 더욱 불안한 쪽으로 몰고 갔습니다. 둘로 쪼개진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실제 2년 뒤에 6·25 전쟁은 일어났고, 오늘날에도 남북 분단으로 한반도의 긴장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걸 막겠다는 것이 그날 경찰지서



공격 강요배 작, 무장봉기의 밤을 형상화한 작품

를 습격한 사람들이 내세우는 대의명분입니다. 이게 본격적인 4·3의 시작입니다. 제주도 내 24개 경찰지서 중 12개가 습격당하고 1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탄압이면 항쟁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 ‘앉아서 죽느냐, 서서 싸우느냐’의 선택 밖에 없는 상황 ”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의 무장투쟁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갈등이나 충돌은 제주도 밖 한반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분단은 전쟁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사태이기에, 남쪽만의 선거를 반대한다는 주장입니다. 제주도만의 사태는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런 만큼 이때까지의 제주도 상황은 경찰 병력만으로 사태를 일찍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사실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민족의 이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평화적으로 사태를 풀어갔더라면 이날의 사건은 3만 명 희생자를 만든 엄청난 사태로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상호존중, 화해, 협력, 평화, 인권의 가치가 더욱 소중하다는 역사적 교훈을 얻게 합니다.

4.28 평화 협상과 오라리 방화사건

미군정 경찰은 4.3을 ‘북한과 연계된 공산주의자들의 난동’이라고 선전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당시에도 이런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같은 미군정 관리였지만 검찰총장 이인(李仁)은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을 미군정 관공리들의 부패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름이 제대로 든 것을 좌익계열에서 바늘로 이것을 터뜨린 것이 제주도 사태의 진상”이라고까지 말했을 정도입니다.

“ 즉, 이념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고 평가한 것이지요. ”

군(국방경비대) 역시 사태의 본질은 제주도민과 경찰, 서청 사이의 충돌이라고 이해하여 이 사건에 개입하기를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군대도 경찰 이상으로 사태 진압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미군정의 지휘를 받아야만 했으니까요. 4월 말쯤에 이르자 미군정은 군부대에도 4.3 진압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평화회담의 주역 김달삼(왼쪽), 김익렬(오른쪽)

그러나 당시 제주주둔군 9연대의 연대장 김익렬 중령은 사태를 평화적으로 풀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었지요. 그리하여 4.3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4월 28일에 4.3을 시작한 무장

대 측과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합니다.

4월 28일, 9연대장 김익렬 중령과 무장대 사령관 김달삼(본명 이승진)은 치열한 논쟁 끝에 극적인 타결을 이루어 성공적으로 협상을 끝내게 됩니다.

72시간 내에 전투 중지와 점진적 무장해제 그리고 무장대에 대한 사실상의
신변 보장이 합의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합의가 그대로 지켜지지만 했어도 그 시기 세계사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의 4·3학살과 같은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협상을 깨는
방해공작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제주도 오라동 연미 마을에 무장대를
가장한 괴청년들이 몰려와 불을 지르고 난동을 피운 겁니다. 미군정은 이
장면을 하늘과 땅에서 입체적으로 촬영했고 그 필름은 곧바로 「제주도의
메이데이(Cheju-Do May Day)」라는 선전용 기록영화가 되었습니다. 무장
대가 이 마을을 방화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한 술책이라 할 수 있지요. 물론
목적은 평화협상을 깨뜨리려는 데 있었습니다. 평화가 오고 진상이 드러날
경우 입장이 곤란해질 미군정 경찰이 배후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5월 3일에는 평화협
상을 믿고 산에서 내려오던
민간인들에게 총격을 가했습
니다. 이 역시 계산된 행동이
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정은 사
태를 파악하고 항의하던 김
익렬 연대장을 해고해버립니
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강
경파인 박진경 중령을 임명



오라리 방화사건 우익청년단이 조작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합니다. 박진경은 구 일본군 소위 출신으로 미군정장관 던 소장의 총애를
받던 인물입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방해하는 제주도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
다”라고 했을 정도로 김익렬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분단을 가져오는 5·10선거를 거부하다

얼마 후 5월 10일, 38도선 남쪽의 한반도에서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정부 수립을 위해 우선 헌법을 제정할 국회의원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이때 뽑힌 국회의원들을 제헌의원이라고 부릅니다. 헌법을 처음 제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쪽만의 선거는 한반도 전체 정치 상황으로 볼 때 전쟁 위험성이 있어서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이 선거를 반대하고 거부했습니다. 백범 김구와 같은 인물이 대표적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분단 정부 수립하는 것에 협력할 수 없다”라고 연설했습니다. 분단은 전쟁을 예고하는 것이기에



1948

투표 거부 주민들의 하산 행렬 5·10선거를 반대하기 위해 산에 올랐던 해안마을의 주민들이 하산하고 있는 모습

그랬던 것입니다.

제주도 남로당 사람들도 이것을 명분 삼아 4·3을 시작했다고 하지요. 그런 만큼 제주도에서는 5월 10일 선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3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단지 1명만 뽑혔습니다. 나머지 2개의 선거구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투표 거부를 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선거 거부는 제주도민들에게 큰 탄압을 예고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박진경을 암살한 문상길 중위의 최후진술

김익렬의 평화회담은 무산되고 미군정이 오라리 사건을 조작하면서 피비린내 나는 강경토벌로 전환한지 44일 째 되던 날, 박진경은 부하들에 의해 암살됩니다. 연루된 10명 중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에게는 사형이 집행되는데 당시 기사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은 미군정의 법정이며 미 군정장관인 딘 장군의 총애를 받던 박진경 대령의 살해범을 재판하는 인간들로 구성된 법정이다. 우리가 군인으로서 자기 직속상관을 살해하고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죽음을 결심하고 행동한 것이다. 재판장 이하 전 법관도 모두 우리 민족이기에 우리가 민족 반역자를 처형한 것에 대하여서는 공감을 가질 줄로 안다. 우리에게 총살형을 선고하는 데 대하여 민족적인 양심으로 대단히 고민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다. 이 법정에 대하여 조금도 원한을 가지지 않는다. 안심하기 바란다. 박진경 연대장은 먼저 저세상으로 갔고, 수일 후에는 우리가 간다. 그리고 재판장 이하 전 원도 저세상에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와 박진경 연대장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저세상 하느님 앞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인간의 법정은 공평하지 못해도 하느님의 법정은 절대적으로 공평하다. 그러니 재판장은 장차 하느님의 법정에서 다시 재판하여 주기를 부탁한다.

문상길(법정 최후진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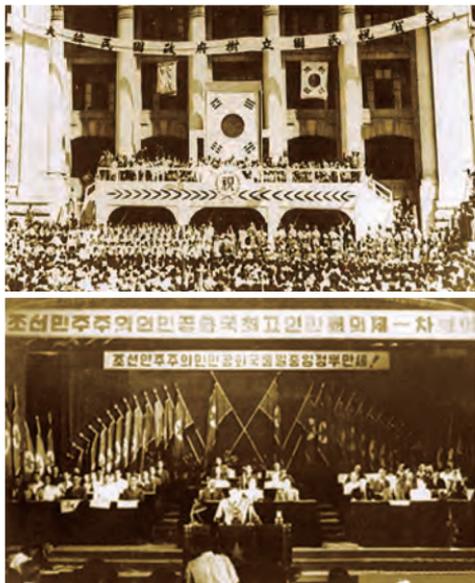
한라산 자락 백성 강요배 작, 5·10단선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산에 오른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

“22살의 나이를 마지막으로 나 문상길은 저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군대입니다. 매국노의 단독 정부 아래서 미국의 지휘하에 한국 민족을 학살하는 한국 군대가 되지 말라는 것이 저의 마지막 염원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헤어져 떠나갈 사람의 마지막 바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뒤이어 손하사관이 형장으로 향하면서 사람들에게 웃는 얼굴로 목례를 하였다. 집행장이 낭독하자 유언으로 “여러분, 훌륭한 한국 국민의 군대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말을 남기는 순간, “겨누어 총!” 하는 구령이 떨어졌다. 이때 손하사관의 입에서 “오오... 삼천만 민족이여!”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 그러자 “짜!” 하는 구령이 떨어졌다...

1948년 8월과 9월에 들어선 두 개의 정부

제주에서는 제헌의원을 뽑는 선거가 무산되었지만 한반도에서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여기서 뽑힌 사람들이 헌법을 만들어 1948년 7월 17일에 공포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제헌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만들고,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하여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해방 후에 곧바로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3년간의 미국 군사정부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던 겁니다. 그러자 북쪽에서도 서둘러 정부 수립을 공포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48년 9월 9일 시작한 북한의 공식 이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축하할 일이겠지만, 조국 분단은 또한 통탄할 일이며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전환은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공포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승만은 일단 정부를 수립한 후 자신의 정통성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하루빨리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남쪽만의 선거 반대를 외쳤던 제주도가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편한 존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과 북의 분단정부 수립 기념식

2018

새 정부를 승인하는 유엔의

절차가 그해 12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것도 그의 조급함을 부채질한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국제무대에서의 승인을 위해선 어떻게든 12월 이전에 국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미군정 역시 마찬가지로 조급해 있었습니다. 1948년 말까지 한반도에서 떠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군대 철수 이전에 한반도의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들이 선택한 건, 평화가 아니라 완전 섬멸이었습니다.

1948년 가을부터 시작된 광기의 시대

강력한 토벌이 시작된 것은 1948년 10월 17일부터입니다. 이날 제주지역 토벌 사령관인 9연대장 송요찬은 “해안선에서 5km 이상 지역은 적성구역으

로 간주하고 그곳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살하겠다.”라는 무시무시한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겠다는 발표입니다. 법적 절차 없이 무조건 제주도 사람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적국과의 전쟁 중에도 포로와 일반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투행위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자는 보호를 받아야 하고 존중되어야 하며, 인도적인 대우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규정한 제네바 협약에도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1948

… 초가을이 되자 산부대의 식량조달이 곤란해져서 마을에서 약탈하거나 하게 되지만 그때까지는 마을의 어머니들, 주로 산부대에 가족이 있는 어머니들이 ‘오 줌허벅’(비료용 소변을 담아 운반하는 동근 웅기항아리)에 보리나 조를 넣어 경비대의 감시 눈이 빛나고 있는 가운데를 지나 소변과 같이 뿌리고 돌아 갑니다. 그걸 산부대가 와서 밤에 굶어가는 거예요. 웬만한 유대가 없으면 그런 일을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산부대에 대한 공감은 그 정도로 강한 것이었어요.

김시중 (당시 19세)

같은 해 11월 17일에는 계엄령이 내려졌습니다. 계엄령은 본래 국가 위기 사태 때 군대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모두 장악 행사한다는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제주도가 당시 계엄령이 있어야 통치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였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계엄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계엄법은 그 다음 해인 1949년 11월 24일에야 제정 공포됩니다. 법도 없는 상태에서 계엄령이 내려진 겁니다. 설혹 계엄령이 정당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중산간 마을은 대부분 불살라버렸고,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사살해 버렸습니다. 여성이나 어린이, 노약자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런 행위는 전쟁 때에도 할 수 없는 불법입니다. 하물며 전쟁 지역도 아닌 곳에서 이처럼 무자비한 살육이 한동안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저질러졌던 갖가지 불법 학살들은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행위들이기에 여기서 소개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 예로 지금 제주공항 자리에는 수많은 4·3 원혼들이 잠들고 있습니다.



제주도로 출동하는 경비대 대원들을 격려하는 이승만

2018

6·25 때 쯤에서 우리 언니네가 서문통에서 고무신 장사를 했는데 그 상점에 앉아서 비행장으로 사람들을 실어나르는 걸 봤어. 차 8대로 실어나르는 걸 말이야. 그건 잊어버려지지 않아. 시각은 밝은 때 사람들 죽이려고 광목으로 눈가리개를 하고 비행장 쪽으로 신고가는 걸 봤어.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때 비행장에서 800명을 죽여버렸다고 했어.

추수선(여, 당시 23세)





천명 강요배 作, 4·3 당시 초토화작전으로 마을을 불태우고 쫓겨나는 이비규환의 장면을 형상화한 작품

☞ 제주시에 사는 친척 밖거리(바깥채)에 육지군인이 살았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집에 오더니 아내에게 말하길 ‘밥 먹을 생각이 없다, 술만 가져오라’라고 해서 말없이 마시다가 ‘오늘 너무 가까운 젊은이들을 죽였다. 모두 총살시켜 구덩이에 몇몇 담듯이 쓸어 넣었다. 한 명도 살려달라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면서 ‘여기를 당장 떠나고 싶다’라고 하더니 얼마 없어서 육지로 발령받아 나갔어요.

김이선(여, 당시 17세)



통곡 박경훈 작

애당초 군경이 파악했던 무장대는 불과 5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무려 3만 명을 희생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으로서는 차마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잔인한 행위들이 동원되었습니다.

1948

산으로 올라간 사람들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절제한 약탈을 시작했습니다. 식량보급이 끊기고 정부에서 그 지역 사람을 길잡이로 삼아 토벌에 나서면 그 본인과 가족에 대한 잔인한 보복이 허다했습니다. 산부대에 의한 피해가(사망자 중 10%는 산부대에 의한 보복 살인) 가장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양민들은 ‘산도 무섭고 군·경도 무서운’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들을 ‘폭도’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대를 ‘광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세월이 미쳐버렸다는 얘깁니다.

이런 미친 세월은 다음 해인 1949년 봄까지 지속됩니다. 1947년 3·1사건 이후로 일제의 적폐를 청산하고 통일된 세상을 만들어보려던 뜻을 가졌던 제주도의 젊은이들은 산으로 피신하고 일본으로 밀항해 갔으며, 섬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대학살시기에 대부분 희생되었습니다.

☞ 슬픔이란 대체로 눈물로 한숨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말과 글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4·3의 슬픔은 눈물로도 필설로도 다 할 수 없다. 그 사태를 겪은 사람들은 덜 서러워야 눈물이 나온다고 말한다. **현기영** (‘목마른 신들’ 중에서)

4.3의 이름을 정하지 못하는 까닭

제주도에 가면 어느 지역,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4·3에 대한 얘기가 다릅니다. 당시 미군정과 서북청년회의 횡포, 그리고 남한만의 단독선거로 인한 분단에 반대했다는 점에서는 당연히 항거요 항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 경찰가족이나 군인가족, 또는 시국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생업에 바빴던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가족이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을이 불탄 것은 이승만 정부의 명령에 따른 것이지만 눈 덮인 한라산에서 토끼몰이처럼 쫓기고 쫓겨 악에 반친 산사람들이 마을을 불지르는 소행도 있었습니다. 규율과 질서가 없는 보복의 형태는 4·3이 길어질수록 더 무자비해졌고 그 시기의 공포를 지금도 제주도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살과 탄압 시기가 길어질수록 주민들에게 산사람, 산부대라는 말은 사라지고 폭도라는 말이 일상화되어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 우리 마을은 자경대장 김운수 씨를 중심으로 마을 경비를 담당했습니다. 젊은이는 특공대, 나이 든 분은 의용대로 편성돼 매일 밤 보초를 썼지요. 폭도들은 우리 집에도 들이닥쳐 어머니에게 창을 들이밀면서 ‘쌀을 내 놓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어머니가 엉겁결에 창끝을 잡자 다시 창을 당기는 과정에서 어머니 손이 잘렸습니다. 폭도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어머니 가슴에 창을 마구 찔렀습니다.

김학배 (남원면, ‘4·3은 말한다’ 제5권 153쪽)



제주공항 유해발굴 현장 60여 년 만에 이루어진 공항 내 유해 발굴은 1, 2차로 진행됐다. 2007년에 유해 128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61구, 총 383구가 발굴되었다.

1948

이런 분들에게는 4·3의 원인이 중요하지 않고 눈앞의 실제 피해가 사무치게 됩니다. 살육의 현장에서 용케 피해나간 사람들은 6·25 한국전쟁 때 ‘예비 검속’을 통해 죽어나갔습니다. 그 시기를 통과해 살아남은 제주 사람은 ‘4·3은 10년 전쟁이었다’라고 합니다.

국가 지정 추념일인 4월 3일

‘3만’은 숫자로 볼 때는 무미건조하겠지만, 희생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아픔입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이니 현재 제주도민들 중 상당수가 이 아픔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도 오랜 기간 동안 제주4·3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단어였습니다.



2018

4.3사건 희생자 위령제 매년 4월 3일 오전 10시 4·3평화공원에서는 4·3희생자들을 위무하는 위령제가 열린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직·간접적으로 이 사건에 책임이 있기에 은폐해 왔던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기득권 세력의 뿌리는 해방정국에서부터 찾아질 수 있습니다. 그 원조 세력의 억압으로 인해 그동안 침묵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국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강요된 침묵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1987년 6월항쟁의 민주화 열기는 4·3의 억울한 목소리들을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게 했습니다. 1989년 4월 3일, 제주시민회관에서 공개적으로 추모제 행사를 처음 가졌습니다. 숨어서 추모하던 사람들이 밝은 대낮에 ‘41주기 4·3 추모제’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의 진상규명 노력은 정부의 탄압을 초래하는 일이었기에 대단한 용기와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움을 떨치고 광장으로 나섰던 촛불혁명처럼 4·3은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평범하지만 용감했던 시민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2000년에 4·3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2003년에는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

되었습니다. 그 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국가 권력을 대표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박근혜 정부는 4월 3일을 국가 지정 추념일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억울한 죽음을 추념한다는 의미입니다.

4.3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국가수반의 공식사과

그런데도 4·3문제가 온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장애물이 아직도 많이 버티고 있지요. 박근혜, 최순실이 구속되었지만 사회 곳곳에 박힌 잘못된 기독교 세력의 폐해가 여전하지요. 그들의 반격 또한 만만치가 않지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쌓인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탄탄하게 그들의 힘을 축적시켜 왔겠습니까.

4·3도 마찬가지입니다. 촛불혁명이 승리했듯, 4·3도 이제 시민권을 얻었다고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5·18발포 책임자가 규명, 처벌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4·3 역시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진 적이 없습니다. 아니 가해자가 누구인지조차 명확히 얘기하고 있지도 못해요. 오랫동안 학살의 주역들은 참회가 아니라 4·3의 정신을 ‘빨갱이 사상’으로 매도하면서 자신들은 애국을 한 것이라고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큰 권력을 가지고 주류 행세를 하며 탄죽을 걸고 있지요. 또한 분단과 전쟁을 막으려고 하다가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조명도 없어요. 막연히 시대의 희생자로만 언급되거나, 심지어는 국가권력에 도전한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지요. 더 억울한 것은 소위 ‘빨갱이’ 색칠입니다. 다들 알

다시피 한국사회에서 ‘빨갱이’ 색깔은 모든 방어막을 뚫는 행위잖습니까.

“ 이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은 분단 반대, 전쟁 반대였습니다. ”

그것을 실패했기에 지금도 한반도는 세계에서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땅이 된 것이지요. 트럼프와 김정은이 벌이는 극단적 말싸움을 보십시오. 언제 한반도에 전쟁이 터질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만약 그때 통일 정부를 구성했다라



백비 4·3평화기념관 전시실 초입에 백비가 놓여 있다. ‘백비’란 어떤 연유로 이름을 새기지 못한 비석을 말한다.

— 2018

면 이런 불안과 긴장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4·3은 현재진행형인 것이지요. 혹시 우리의 한 해 국방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2017년 기준 40조 3,347억 원입니다. ‘40조 원’이라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40조 원이라면 ‘연봉 4,000만 원, 100만 명 일자리의’ 액수입니다. 우리의 청년 실업이 심각하지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수당을 지급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돈이 없어서 지급 못하는 게 아닙니다. OECD 11위 경제대국입니다. 돈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디 쓰는지 아시겠지요. 분단이 아니었다면 국방비의 상당액을 복지료 돌릴 수 있겠지요. 그랬다면 우리 청년들의 행복지수는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오늘도 4·3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 불사’를 외치는 사람들과 ‘전쟁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합니다.



촛불혁명 촛불혁명의 제1의 과제는 적폐청산이다. 4·3은 이 적폐의 가장 아래쪽에 자리잡은 적폐의 기원이기도 하다.

1948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1947년 3·1절 대회로부터 시작된 4·3은 분단에 반대하고 통일된 나라를 염원하던 제주도민의 열망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주도민만이 아닌 온 국민의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4·3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생명권이 무참히 유린된 역사이기도 합니다. 4·3의 엄청난 희생은 역설적으로 인간 생명의 고귀함과 인권의 소중함을 깨우쳐 줍니다. 광주와 세월호에서 그랬듯이 국가와 정부가 어떠한 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반면교사입니다. 그러므로 4·3의 진실과 올바른 의미를 알리려는 우리의 움직임은 대한민국이 인권과 평화, 통일의 나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습니다.

4·3 희생자들의 원혼과 유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인권, 평화, 통일의

나라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전후 세계질서가 냉전체제로 재편되고 민족이 분단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큰 고통을 당했던 아픔의 섬 제주도는 미-중 간의 신냉전이 시작되고 있는 오늘날 또다시 그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드는 평화의 보루, 진정한 ‘세계 평화의 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4·3은 대한민국의 역사로 온전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왜? 동백이 4·3 상징꽃이 되었을까요?

동백(冬栢)은 추운 겨울에 피는 꽃입니다. 오죽하면 꽃 이름에 겨울 동(冬)자가 들어 있겠습니까? 특히 강렬한 붉은 꽃잎은 추운 겨울, 만물이 잠들어도 저 홀로 깨어 꽃잎이 화려한 꽃망울을 터뜨려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한겨울 하얀 눈발에 만개한 상태에서 어느 날 특! 통꽃으로 지는 꽃이기도 합니다.



이런 동백이 4·3의 상징 꽃으로 이미지를 얻기 시작한 것은 강요배 화백의 4·3연작시리즈인 “동백꽃 지다_제주민중항쟁전”의 표지화 및 작품으로 등장

하면서부터입니다. 그 작품은 전면에 동백이 통꽃으로 떨어지는 순간을 포착한 작품인데, 작품의 좌측 상단부 원경에 하얀 눈발에서 토벌대들이 몰려 있고 한 사내가 나대를 들고 내리치는 모습과 하얀 눈발에 흩날린 붉은 피가 보입니다. 작가는 동백을 당시에 희생당한 제주도민으로 파악했던 것입니다. 그 후 동백은 제주4·3의 상징꽃으로 점점 많이 그려지거나 글로 쓰여지면서 이제는 4·3 상징꽃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4·3이 머우과?

역사에 전의를  4·3이 전명준

발행일	초판 1쇄 2018년 1월
발행처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편집디자인·제작	도서출판 각
주소	(63196) 제주시 동광로 51 4층
이메일	43jeju70@gmail.com
홈페이지	www.4370jeju.net
페이스북	www.facebook.com/43jeju70/